

투데이 칼럼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는 제주교포 후손으로 당초 고향은 제주도이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고용희 친정아버지 즉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산소가 있다. 고용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뒤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갔다. 재일교포인 것이다. 그녀는 북한에서 무용수를 할 때 김정일의 눈에 들었다. 그 뒤 김정일은 아버지의 김일성 물레 상당 기간을 고용희와 살았다. 그리고 고용희는 김정철,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을 낳았다. 북한에서 재일교포는 '제포'라고 불리며 우대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북한은 재일교포 출신들에 대해 일본 식민지 시절 때 일본으로 건너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재일교포 출신들은 믿을 수 없다고 공격이나 대학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고용희도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자신의 생일인 1월 8일 공개적인 축하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어머니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기 때문이다. 생일 행사를 하면 당연히 어머니 고용희도 거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인이 널리 알려지면 김정은의 백두혈통 주장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고용희와 김정일 사이에서 1981년 김정철, 1984년 김정은 그리고 1989년 김여정이 태어났다. 하지만 이미 김정일은 첫 번째 부인인 성혜림과의 사이에 1971년 태어난 김정남이 있었다. 두 번째 부인인 김영숙과의 사이에 1974년에 태어난 김설송도 있다. 김설송은 김정은보다 열 살이 많다. 김영숙은 아들을 낳지는 못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네 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이 직접 결정해 준 여인이다. 김영숙은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며느리인 셈이다. 김영숙은 김씨 왕조의 공인된 왕세자비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김영숙의 딸 김설송은 어릴 때부터 총명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무릎에 앉혀놓고 응석을 받아줄 정도였다. 김설송 밑으로 김춘송이라는 여동생이 있다. 한편 김설송은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를 졸업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영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설송은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맡고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부터 조직지도부 부장으로서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했다. 재정경제부까지 관장했으며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부서인 '39호실'을 담당했다. 김정은은 이복누나 김설송에게 자문을 구하고 누나로서 예우해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이 김설송을 중용하는 것은 자신의 친형인 김정철과 다르다는 생각일 것이다. 김설송은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인바 확신 때문이다. 한편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할 때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 고용희 처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집증, 과시주의와 과대망상, 예측하기 어려운 충동성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김정은은 남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편집증이 있다. 친형인 김정철마저도 자신의 지위를 언제든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김정은보다 세 살 위인 이복형 김정남은 1971년 김정일과 첫 번째 부인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났다. 실질적으로 김정일의 장남인 셈이다. 손자 김정남의 존재를 할아버지 김일성이 알게 된 것은 김정남이 네 살 지나서였다. 김일성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자신의 손자로 인정했다. 김일성도 자신의 건강을 담당하던 간호사와의 사이에서 김정남과 출생 연도가 같은 김현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김정일도 아버지 김일성의 약점인 김현의 존재를 파악한 뒤, 그 사실을 이용해 김정남의 존재를 김일성에게 알렸을 것이다. 김정남의 어린 시절은 김정남의 이모인 성혜림의 자서전 '동나무집'에 나온다. 성혜림의 아들이자 김정남의 이복 사촌형인 이한영의 '김정일 로열 패밀리' 예도 소개되어 있다. 성혜림 모자는 북한에 살다가 1982년 탈출했으나 이한영은 남한에서 북한에 의해 살해당했다.

기고문

화재비상탈출 생명줄 완강기! 얼마나 알고있나요?

지난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전기난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건물엔 완강기 2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5년 1월 10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사툰 오토바이 배선 합선으로 불이 났다.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완강기로 탈출한 시민이 한 명뿐이었던 사실은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소방청 고시에 의해 2005년 3월 10일부터 호텔과 병원, 공동주택 등 소방대상물 3층부터 10층에, 노래연습장과 고시원 등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2층부터 4층에 설

치해야 한다.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3층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구비해야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 기준 80.1%에 달한다.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계단이나 복도 등 통로를 이용해 재실자가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최후의 피난기구다. 연속적으로 교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간이완강기로 구분한다. 완강기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①완강기 합 인(내부)의 구성품(속도조절기, 후크, 가스벨트, 로프 락)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완강기 합 인(내부)에서 속도조절기와 벨트를 꺼냅니다. ③지대대 고리에 속도조절기의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④지



권경열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지대 고리가 창밖으로 위치하도록 창 바깥쪽으로 밀니다. ⑤줄이 감겨있는 락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⑥가스벨트를 가슴높이까지 겁니다. 이때 팔을 들지 말고 쳐드림이 밑으로 꼭 맞도록 끼웁니다. ⑦가스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줄메달을 충분히 조입니다. ⑧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내립니다. * 체중이 실려도 속도 조절이 돼 추락하지 않습니다. ⑨처음 전

물에서 떨어질 때는 손을 아래로 내리고 하강을 시작하고 이후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등의 순으로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완강기를 급하게 서둘러 사용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 번에 두 사람이 하강을 하거나 가스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내려오는 도중 벨트에서 뚫어 빠지는 등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 건물에서 그대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떨어져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가 최소 4천 이상 발생했다. 안전은 지식이나 생활이며 습관이다. 유체원을 비롯해 학교와 산업 현장, 더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확신한다.

사설

예술세계 경계 허무는 오병기 화백

예술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오병기 전 한국미술협회 전주 지부 회장이 계간 종합 문예지 한국창작문학 2021년 봄호를 통해 제2회 한국창작문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그는 전북 도내뿐 아니라 국내 각종 미술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진 화가이다. 이번 수상 시는 <늦바람이> <어느 여름날> <산길> <봄꿈> <선운사 꽃등>이다. 그의 시 세계는 풍부한 시적 감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을 노래하고 있다는 평이다. "자연물을 바라보는 해안은 순수성과 서정성을 결합해서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독창성이 돋보인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시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물을 형상화 해 내는 표현 기법이 뛰어나 문학성의 우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병기 화백은 이미 지난 2019년 한국창작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한국창작문학 제16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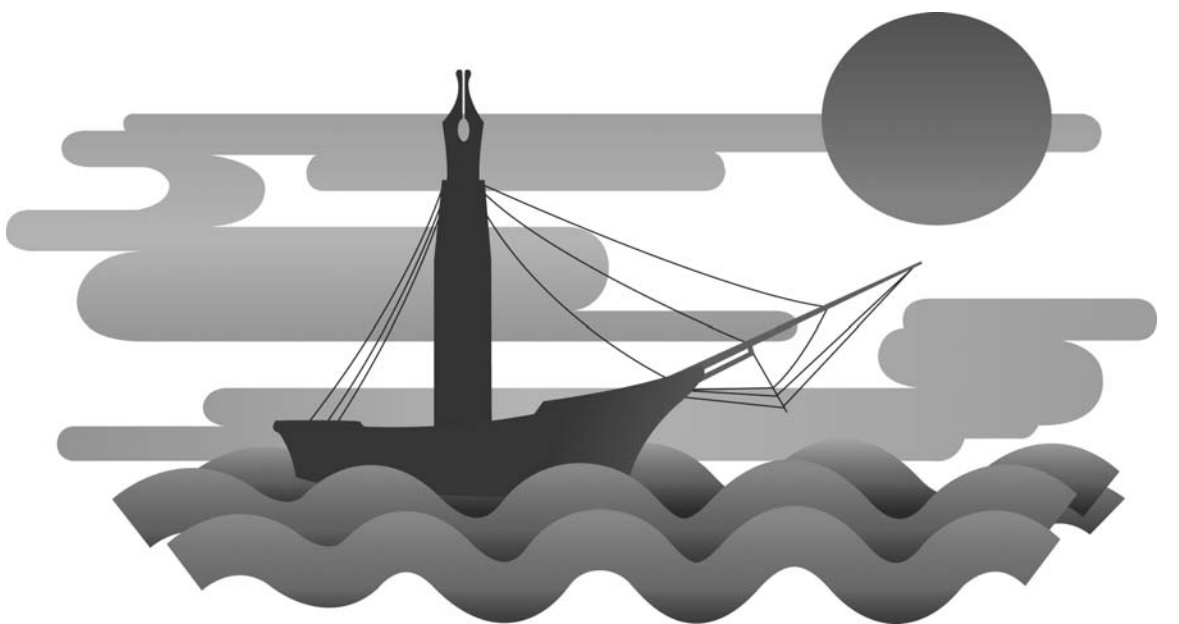
등단시 <산목련> <반달> <나의 어머니> 등이 소개됐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꽃의 이미지, 가을날의 쓸쓸한 정취, 어머니와의 유년시절 추억 등을 묘사한 시인의 참신한 시어와 높은 서정성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미술과 문학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 세계의 극치를 표현하는 예술인들이 늘고 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예술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다. 진실한 예술은 맑은 영혼에서 나오는 창의력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를 글로 그리는 것과 통한다. 그림과 시에는 모두 작가의 성격과 품성이 담겨져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펼치기 때문이다. 시인 겸 화가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삶의 흔적을 그림과 시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오병기 화백이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에게 꿈과 용기와 활력을 심어주는 화가 그리고 시인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전북 평화통일지도자협의회 과제

전북 평화통일지도자협의회 각급 지도자 70여명이 지난 2일 덕진구 팔달로 소재 통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1년 산년회를 갖고, 신통일한국 시대를 향한 평화통일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상재 회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해온 각급 회장단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 시대 초종교적인 3.1 정신을 계승해 한민족의 마지막 숙원 사업인 신통일한국을 향한 평화통일운동에 최선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위가 침체되어 있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환란 속에서도 한민족 응분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번영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함께 했다. 신통일한국 시대의 조속한 도래를 위한 평화통일 운동 확산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민간통일 운동의 방향을 중단 없이 모색해야 한다. 전 국민의 염원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통일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갈 때 비로소 통일의 문이 쉽게 열릴 수 있다.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민간 통일운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통일운동을 확산시켜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방안, 통일의 필요성, 시대에 맞는 통일 발상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일이 필수적이다.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해야 한다. 통일의 비전과 통일 한국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통일 지도자들이 스스로 앞장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의 길을 여는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통일 한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의 기회와 포기를 희망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